

고흥군, 서울 강동구와 자매결연 협약체결

상호 교류 증진 도농 상생 모범 사례로 발전 약속 “관광객 유치·체육 친선교류 등 협력 범위 확대”

고흥군이 최근 서울 강동구청에서 강동구와의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두 지역 간 교류를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기근 군수와 송영현 군의회의장, 농수특산물 관련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이정훈 구청장은 환영사에서 “청정자연과 첨단산업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고흥군과의 자매결연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두 지역이 서로 긴밀하고 내실있는 협력 관계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송기근 군수도 “두 도시의 특성과 장점을 토대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성화를 위해 9월 강동구 로컬푸드 판매장인 ‘싱싱드림’에 고흥 농수특산물을 입점시킨 것을 비롯해 ‘추석맞이 강동구 온라인 직거래장터’에도 함께 하는 등 폭넓은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환영사에서 “청정자연과 첨단산업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고흥군과의 자매결연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두 지역이 서로 긴밀하고 내실있는 협력 관계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송기근 군수도 “두 도시의 특성과 장점을 토대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가면서 도농 상생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자매결연을 계기로 농수산물 판촉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 체육 친선교류, 청소년 문화탐방, 민간단체 간 교류 등으로 협력의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광양시, 노동력 절감 위해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지속 추진

사업비 7억4천만원...농업인·고령농·귀농 등에 547대 공급

광양시는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력재배 실현을 위해 금년도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7억4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다목적 소형 농기계 547대를 공급했다.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 파종·수확 기계 및 소형농기계를 여성농업인, 고령농, 귀농 등 소규모 농가에 우선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 및 기타 일반 농기계 중 70만 원 이상 농기계 구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광양시에서는 도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매년 자체 사업비를 확보해 추가로 농기계를 공급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지금까지 약 7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다목적 소형농기계 3,224대를 공급했다.

특히 올해에는 2019년도 친환경농업대상 상사업비 8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예산 4억7천만 원의 사업비 외에 2억7천만 원 203대의 농기계를 추가 지원하여 올해 사업신청 농가 전량 농기계 공급을 완료했다.

시는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와 부녀



화 추세에 맞춰 생력재배 실현을 위해 농업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다목적 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보조지원 사업 확대와 함께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함께 허위, 중복지원 등 부정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보조사업 배제 등 패널티를 적용해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여수시,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 참여...홍보관 운영

여수시는 10일과 11일 이틀간 서울 COEX D홀 행사장에서 열리는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에서 여수시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는 “한국판 뉴딜 일자리, 지역에서 앞장섭니다”를 주제로 대통령직속 일자리 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주최해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일자리 우수시책을 알리는 행사다.

행사기간 여수시는 ‘청년에게는 희망을, 중·장년에게는 안정을’이라는 주제로 청년과 중·장년층 일자리사업, 테크니션스쿨 운영 및 취업사례 등을 선보인다.

여수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활발한 기업유치, 다양한 재정일자리 사업 추진, 산업별·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지원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기도 했다.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여수시 테크니션스쿨은 청년실업 문제 극복을 위해 민·산·학·관이 합심해 만든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사업으로 90%를 넘는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며 여수시 청년 취업의 등용문으로 자리 잡았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순천시 덕연동 “우리동네 고고학을 아시나요”

덕암유적 선사체험 프로그램 이틀간 운영...1000여명 참여



순천시 덕연동 행정복지센터는 최근 이틀간 아이들이 선사시대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는 덕암유적 선사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덕암유적 선사체험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유치원과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는 것.

프로그램에 참여한 1000여 명의 학생들은 선사시대 생활상을 주제로 설명을 듣고, 바위에 암각화를 그리듯 상상한 것을 스크래치 기법으로 종이

에 표현했다. 암각화 체험 작품은 덕암유적지에 전시해 가족, 친구들과 함께 유적지를 찾아 자신의 작품을 찾아보며 추억을 쌓았다.

또, 장명루 팔찌 만들기, 숫돌이, 제기차기, 움집체험, 즉석사진 인화 등 다양한 전통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순천시 덕연동 문미정 동장은 “이번 선사체험 프로그램으로 마을 가까이 있는 유적지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아이들이 선사시대의 생활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덕암 선사유적지는 청동기 시대부터 고려 초기에 이르는 대규모 주거지 240여 개와 환호(環濠) 3개, 무덤 10여기, 경질무문토기(硬質無文土器) 등 유물 500여 점이 발굴된 복합 유적지다.

제출 방법은 방문, 홈페이지(<https://council.gwangyang.go.kr>), 우편, 팩스(061-797-2570), 그 외 사항은 (061-797-2515)로 문의하면 된다.

진수화의장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시민과 소통하는 대의 기관으로서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보성군, 예술인 긴급복지 2차 신청 접수

16일부터 27일까지 창작활동·생활안정자금 50만원 지원

보성군은 16일부터 27일까지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 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공연 등의 행사가 중단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며, 창작활동 기반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현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다. 신청은 보성군청 문화관광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2차 신청자격은 1차와는 달리 직장가입자도 중위소득 120%이

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만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보성군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으로 지금까지 7명의 예술인이 지원금을 수령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면서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해서 많은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청 문화관광과(☎061-850-5202)에 문의하면 된다.

보성=김덕순 기자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 의견 수렴

광양시의회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오는 18일까지 시민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수렴은 시정의 주요시책 개선 사항, 시민생활 불편사례, 예산절감 방안, 기타 개선 사항 등을 접수

받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개인 사생활 침해, 재판 진행 또는 수사 중인 사항, 감사 중이거나 감사가 종료된 사항, 익명에 의한 제보 등은 제외한다.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